

월급 66만원으로 육아맨 비극



여수 어느 중증장애인의 죽음

고용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참여 20대 장애인 극단적 선택
불편한 몸 이끌고 매달 4명 5차례씩 취업 상담 등 실적 압박 시달려
실적 미달 땀 월급 깎여 극심한 스트레스...“사회적 타살” 비난 빚발

“중증장애인 설요한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인 설요한(25)씨는 지난달 5일 여수에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중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료지원가’는 중증장애인을 찾아가 상담부터 직장 적응까지 지원하는 임무를 진행한다. 설씨는 지난해 4월부터 매달 4명씩 모두 36명의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찾아가 1명당 총 5차례씩 만남을 가졌다.
자신도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던 설씨는 장애인 자조모임을 결성

하는 등 성실히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주어진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한 뒤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설씨가 이처럼 힘들어 한 이유는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임금 중 일부가 삭감되고, 센터 공금 중 일부가 사전 환수되는 등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황실장은 “설씨는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심각했는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설씨가 살고 있는 여수는 장애인이동권이 열악해 상담할

등을 하는 데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불편한 몸으로 일반인도 힘들어할 매달 4명의 상담을 5차례씩 진행하도록 하고, 할당된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임금 일부를 환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설씨는 임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과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피해를 볼까봐 무척 힘들어 했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성교육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인 ‘동료지원가’들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월 최소 60시간 근무하면, 최대 월 66만원을 지급받는다.
전장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나 다름없다. 참여자 인원을 축소하고 상



장애인단체,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실 앞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전장연은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 횟수를 조정하는 등 취업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공공일자리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 앞 복도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190여개 장애인 단체 연대체인 전장연은 ▲중증장

아이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전면개편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3일 연속 금방 절도 중학생 “학교 가야 하니 빨리 풀어줘”

“학교가야 하니 빨리 풀어주세요.”
광주시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A(15)군은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한 금방주인에게 “한번 착용해 보겠다”고 말한 뒤 40돈짜리 손금 목걸이가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가게문을 뛰쳐나왔다. A군은 200m 가량 도망치다 금방주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풀려난 A군은 하루가 지난 31일 광산구 선운동 한 금방에 똑같은 방식으로 두번째 범죄를 저질렀다. 이날 A군은 다행히(?) 붙잡히지 않았고 지난 1일 송정동 한 금방에서 손금 목걸이 4개를 들고 달아나는 등 세번째 범죄를 저질러 결국 경찰에 긴급체포

“미성년자 잡아둬도 되는거냐”
니우침도 죄의식도 전혀 없었던 A군은 200m 가량 도망치다 금방주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풀려난 A군은 하루가 지난 31일 광산구 선운동 한 금방에 똑같은 방식으로 두번째 범죄를 저질렀다. 이날 A군은 다행히(?) 붙잡히지 않았고 지난 1일 송정동 한 금방에서 손금 목걸이 4개를 들고 달아나는 등 세번째 범죄를 저질러 결국 경찰에 긴급체포

다. 또 소지하고 있던 현금에 대해서는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번 돈이다.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돈이 아니다”며 당당하게 말해 경찰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A군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귀금속 처분대금을 나눠가진 B(15)군 역시 절도 혐의로 체포했는데, B군이 검거당시 차고있던 목걸이는 A군이 훔친 손금 목걸이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을 또 한번 당황케 했다.
경찰은 “요즘 어린 학생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며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발굴 유골 80여구 국과수 본원으로 이송

7~8월까지 1차 분석조사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발굴된 신원미상의 유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본원으로 옮겨져 정밀감식에 들어간다.
2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오전 합장묘에서 나온 80여구 유골 전체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과수 본원으로 보냈다.
광주연구소는 80구나 되는 유골을 정밀감식할 충분한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 국과수 본원에 유골을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유골의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습기 제거 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감식에는 기념재단 등이 추천한 박종태 전남대 법의학 교수, 윤창조 조선대 치의학 교수를 비롯해 법무부, 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참여한다.
이날 5·18 재단 측은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동전 유골의 수량 등을 함께 파악하고, 국과수 본원까지 동행했다.
국과수 본원까지 동행한 5·18재단 관계

자는 “국과수가 해부학 교수들과 함께 7~10일까지 유골에 대한 엑스레이와 CT촬영 등을 거쳐 사전 1차 분석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면서 “추후 일정은 10일 이후 회의를 통해 결정되면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솔로몬로파크 조성 공사 과정에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 중 41구 유골이 안치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합장묘 17에서 80여 구의 유골을 발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차 차량·노점 가판대서

상습 절도 40대 영장 신청

광주북부경찰청은 2일 새벽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이나 영업을 끝낸 노점 가판대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이모(43)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10차례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2018년 교도소 출소 후 주거가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주로 새벽시간대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 방수포를 커터칼로 자르거나, 영업을 끝낸 노점상의 방수포를 찢고 들어가 동전을 훔치고 판매하고 남은 여묵과 계란 등을 훔쳐 먹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고 10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달리던 화물차 짐칸서 범퍼 떨어져 6중 추돌사고

2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용봉IC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상행선 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의 짐칸에서 범퍼가 떨어져 뒤따라던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뒤따라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A(여·61)씨가 가벼운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2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화물차가 배수를 위해 짐칸에 실은

차량 범퍼 부품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화물차 뒤를 따르던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고 멈춰 섰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 2대가 피하지 못하면서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를 발견한 또 다른 승용차들이 멈춰 서거나 부딪히면서 사고가 커졌다.
연쇄 추돌사고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1시간 가량의 심각한 정체에 빚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술 취해 여친과 다투던 프로야구선수, 말리던 시민에게 ‘주먹질’

○···현직 LG트윈스 프로 야구선수가 술에 취해 여친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 행.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LG트윈스 야구선수 A(26)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아파

트 인근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2013년 LG 트윈스에 입단해 2018년 1군에 데뷔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했으나 민취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트윈스측과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